



## 송실대학교 유형 변형 2회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700±70자, 40점)

**[문제 2]** 제시문 [마], [바], [사]를 토대로 <보기>의 광고에 내포된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80자, 60점)

<보기>



환경보호단체의 광고인 그림은 나무의 나이테와 사람을 합성해,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두 사람이 휩쓸려 들어가는 것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벌목된 거대한 나무의 단면과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 제시문 [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은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 내가 어떤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나 대신 줄을 서게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별 문제 없다고 한다. 또한 내가 구매한 입장권을 사용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팔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이기적인 이익을 각자 얻었다는 뜻이다. 125달러를 내고 타인을 고용해 줄을 세운 사람은 직접 줄을 서지 않고도 셰익스피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애당초 타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선 대가로 125달러를 번 사람도 행복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하고 사회적 효용은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재화를 할당한다. 이때 가치 기준은 돈을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로 가능하다.



**제시문 [나]**

친구들과 중국 음식점을 찾은 날, 자장면과 짬뽕 가운데 뭘 고를지 잠시 고민을 하다 한 가지 음식을 결정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나서서 “우리 탕수육도 한 접시 주문하자.” 라고 제안하였다. 여기저기서 “좋아, 좋아.” 소리가 터져 나오고, 탕수육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들이 모두 나오면, 이때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바로 약속이나 한 듯이 탕수육을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탁자 위를 살펴보면, 탕수육 접시는 깨끗이 비워져 있고 다들 각자 주문한 자장면이나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다.

그렇다면 왜 탕수육과 자장면을 먹을 때 대부분 탕수육이 먼저 사라지는 걸까? 탕수육이 자장면보다 더 맛있어서? 아니면 탕수육이 더 비싼 음식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두가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자장면이나 짬뽕은 내 몫이 정해져 있지만 탕수육은 내 몫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자장면보다는 모두의 음식인 탕수육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이 명확한 자원과 불명확한 자원이 섞여 있을 때 소유권이 불명확한 자원이 훨씬 빨리 고갈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 이라고 한다.

**제시문 [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게임과 실험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험이 ‘최후통첩 실험’ 이다.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자. 실험자는 실험 대상으로 나선 철수와 영희 둘 중의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 만약 철수에게 돈을 주었다면 철수가 그 돈을 영희와 얼마씩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제안을 영희에게 제시하게 한다. 철수의 제안을 영희가 받아들이면 공돈 10,000원은 서로 나눠가져도 좋지만 만약 영희가 이를 거부한다면 돈은 다시 몰수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영희는 철수의 제안을 거부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단돈 100원이라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제안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게임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평균적으로 배분 몫이 7대 3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아예 그 돈을 포기했던 것이다.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악으로 대하는 특징을 보이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리시프로칸, ‘호혜적 인간’ 이라 부른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성으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행위에 대해 보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서로 협조하여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제시문 [라]**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설산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오는 세계의 여행자들 덕분에 नेपाल의 경제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여행자 한 사람의 따뜻한 샤워를 위해 뿔감으로 세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공정 여행은 편안한 여행의 대가로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다. 여행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정 여행 운동가들은 자연을 파괴할 수 있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조개, 모피, 새의 깃털로 만든 상품 등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 것도 공정 여행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공정 여행가들은 여행 수입을 위해 문화를 구경거리로 전략시키는 일에 반대한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는 낯선 고리를 찬 여성들로 유명한 카렌 족 마을이 있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이 부족의 진기한 모습과 마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기념품을 구입한다. 그러나 카렌 족 마을 이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들의 전통문화는 이미 상품이자 구경거리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표정하게 긴 목을 늘어뜨리고 있는 저 여인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공정 여행은 문화의 존중을 강조한다. 공정 여행은 여행자와 그들을 맞이하는 이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여행이다. 공정 여행은 공정 무역으로서의 여행의 형태이지만, 그 대상이 초콜릿이나 신발과 같은 상품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 그리고 삶에 관한 문제인 만큼, 더 넓은 의미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경제 문제는 희소성에서 비롯한다. 희소성이란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욕구를 채워 줄 재화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절대적인 개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 희소성을 정의한다. 어떤 재화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재화를 희소하다고 한다. 반대로 재화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사람들이 그 재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를 희소하지 않다고 말한다.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된 상태 즉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모두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바닷가에 별장을 가지고 싶어 해도 땅과 건축 자재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정부는 한정된 세입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해야 할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람들은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 성공 시 발생하는 이윤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생산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경우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소비할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는 승진 기회나 더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그 결과 창의력이 발휘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처럼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제시문 [바]**

A사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A사 살균제를 사용한 가정에서 어제까지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어 오늘 추가로 ○명의 사망자가 생기면서 사망자는 총 ○○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영유아라는 점이 시민들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A사가 사고 발생 후에도 이번 피해는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사는 자사 제품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국과수의 발표 이후에도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실험자를 매수하여 실험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A사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한 B씨의 딸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후 B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 당국은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시간만 지체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 사이 A사 측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태 확산을 막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에도 A사 가슴기 살균제가 대형 쇼핑몰과 동네 슈퍼에서 버젓이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시문 [사]**

라다크의 레 근교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마을 공동체와 가족들 사이의 분쟁과 반목 현상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나는 스카라 마을 주민들이 수로의 물을 분배하는 문제를 놓고 심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정도의 것은 지역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였다.

상호 협동의 정신이 멀리 있는 외부 세계의 통제력에 의해 밀려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때에도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에 수동적인 태도와 무기력함이 파고든다. 사람들은 개인의 책임 의식을 포기하고 있다. 전통 마을에서는 관개 수로의 보수는 공동체 전체가 분담하여 처리하던 일이었다. 수로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곧바로, 자발적으로 삽을 들고 현장에 모여 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고쳐 놓을 때까지 방관하기만 한다.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줄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태도가 더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누를라라는 마을에 세워진 수력 발전소에 대해 정부 관리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물레방아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이 발전소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올해 초여름에 터빈에 돌이 들어가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데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긴 거예요.”



###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 출제 의도

- 최근 3개년간 송실대의 논술 기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2023 모의) 1.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활용하여 <보기 1>의 밑줄 친 ㉠과 같은 상태가 혐오의 발생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토대로 <보기 2>와 같은 혐오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를 논술하시오.
- (2022 기출) 1. 제시문 (가), (나), (라), (라)를 두 입장으로 나누어 대조하고, 한 입장을 택하여 <보기 1>의 밑줄 친 ㉠의 물음에 답변하시오.
2. <보기 2>는 현대 예술의 방법과 지향점을 논한 글이다. 밑줄 친 ㉡의 의미를 <보기 3>의 밑줄 친 ㉢의 관점과 관련지어 논술하되, [문제 1]에서 선택한 한 입장과 제시문 (마), (바), (사)를 근거로 활용하시오.
- (2022 모의)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도덕적 판단의 원천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2. 제시문 (사)의 아이히만의 자기변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두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 (2021 기출) 1.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 <보기 2>의 ㉡과 같은 집단 광고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 (2021 모의) 1. 제시문 (나), (다), (라), (마)의 입장을 두 부류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논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와 제시문 (바), (사)에 근거하여 빈곤의 원인에 대한 제시문 (아)의 관점이 지닌 한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큰 틀에서 송실대는 <보기> 또는 밑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적용 분석형 논제를 출제하고 있다. 간혹 경희대 인문과 유사한 분류형 논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결국 적용 분석 논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제시문들의 단순 요약 및 나열식의 적용은 송실대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답안 유형에 해당된다. 송실대는 여러 차례 입학처의 출제 의도에서 밝히듯, 제시문들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및 조합을 통한 입체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타 대학 논술문제들에 비해 비교적 송실대의 제시문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수험생들 입장에서 간신히 제시문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치 요리 재료를 요리하기 편하게 다듬듯, 각 제시문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요약보다는 개괄적인 요약을 간략한 1-2문장으로 기술한 뒤, 그것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1번 문항은 2022학년도 모의 유형과 유사한 형태인 다수 제시문의 이항 분류로 구성하였다.
- 2번 문항은 2018학년도 송실대 인문 기출문제를 2023년 스타일로 변형 및 재구성하였다. <보기>의 광고는 벌목된 거대한 나무의 단면과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때 답안 작성의 요점은 이러한 위기가 별목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이윤 추구 행위’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 우선 제시문 (마)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행위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목표는 인간 바깥의 외부 환경을 모두 이윤을 위한 도구로 보는 태도를 정당화한다. 주변 환경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영향을 추가한다면 양자의 연관성을 더욱 분명하게 서술할 수 있다.
- 제시문 (바)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기사이다.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 결함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를 은폐,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 즉 가슴기 제조사는 소비자의 죽음보다는 회사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는 기업에게 외부 환경은 이윤 추구를 위해 희생되어도 무방한 도구일 뿐이다. 이 점을 제시문의 내용에서 추출하여 환경 파괴의 원인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정부의 대응자세가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찾아내면 더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 제시문 (사)는 <보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고에 내포된 메시지와 연관성을 놓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관계 수로의 보수라는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라는 점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부에 전가하는 개인의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보기>와 제시문의 연결고리가 마련된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기만 하는 개인의 무책임한 태도가 환경 파괴를 심화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송실대 논술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제시문들간의 유기성에 있다. 따라서 단순 나열형 답안보다는 제시문들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시 답안

[문제 1]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문들은 (가), (나)와 (다), (라)로 나뉜다. 우선 (가)와 (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경제 행위에서도 합리적 사고를 통해 최대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가)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나)역시 탕수육과 자장면의 비유를 통해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 자원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공유지의 비극'현상에 대해 말한다. 이처럼 (가)와 (나)는 인간을 이기적 본성을 지닌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실리적 행위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키는 존재로 보고 있다.

반면 (다)와 (라)는 인간을 호혜적 존재로 보고, 경제 행위에서도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상호 협조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호모 리시프로칸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다)는 자원 분배 상황에서 선에는 선으로 대응하고 악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응징하는 호혜적 인간에 대해 기술한다. (라)는 관광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공정여행의 사례를 통해 인간의 호혜적 본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하고 타인의 이해나 사회 전체의 이득을 도외시한다면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와 (라)는 경제 행위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공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 2]

<보기>의 광고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잘려진 나무의 단면과 사람의 위태로운 모습의 대비는 환경 파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환경 파괴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문 (마), (바), (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마)를 통해 심각한 환경 파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는 희소성을 둘러싼 경제활동이 이윤 추구 동기를 기초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이윤 추구 활동은 경제성장의 기초이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 욕구는 자연을 도구로 보는 태도를 정당화하고 이는 심각한 환경 파괴를 야기했다. <보기>의 광고는 자연을 한낱 이윤을 위한 도구로 보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전해준다.

또한 (바)는 기업과 정부가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슴기 살균제 제조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 A사는 소비자의 죽음보다는 피해의 최소화에만 관심이 있다.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는 기업에게 자연은 희생되어도 무방한 소모품일 뿐이다.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개입하는 정부 또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무책임한 태도도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는 점을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에서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정부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다. 개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문제 해결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환경 파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기>는 환경 파괴의 원인과 환경 파괴의 심화 요인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태도 변화, 개인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시사하는 광고라 할 수 있다.